

탐 방

천세
자동기(주)

세계적 카토너 제작 전문회사 추구 신명나는 일터 · 인재 육성의 기업문화 조성

지난해 포장기사업부 법인 독립

포장의 최종단계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카토너의 도입은 포장의 흐름에서 혁신적이라 불리울 만큼 포장산업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카토너의 등장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던 포장작업의 여러 부분이 기계화되어 인력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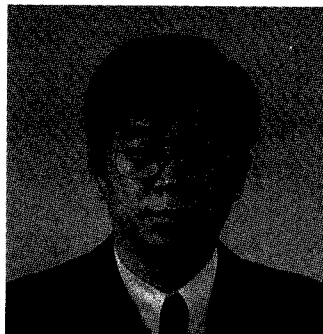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카토너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천세산업(주)에서 지난해 2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천세자동기(주)(대표이사 조의수)는 세계적인 자동카톤포장기 종합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 가속의 불을 당기고 있다.

1980년 폐수처리설비, 정량펌프와 함께 자동포장기계를 생산품목으로 하여 사업에 나선 천세산업은 1986년 자동수축포장기계(psw-400)를 국산화하면서 포장기계 전문메이커로서 틀을 잡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포장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우선 일본자동정기(주)와 기술제휴로 자동포장기(카토닝머신)를 생산, 기술축적과 함께 판매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카톤포장기의 국산화에 나선 천세산업은 1991년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부터 특수용기가 포함된 자동카톤포장기계(모델 C-7A)를 대상으로 국산화 개발품목으로 선정받아 다음해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93년에는 신한국형 자동카톤포장기계 SHP-3을 개발하는 등 카토너 전문회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

천세산업은 지난해 포장기계사업부를 천세자동기(주)로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포장기계생산에 주력하게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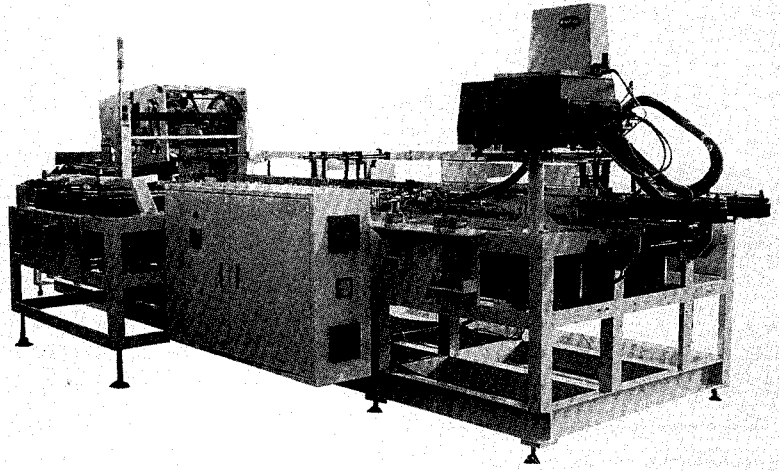
▶ 조의수 / 천세자동기
대표이사

으며, 독립후 첫 작품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화장품전용 카토너를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천세자동기가 카토너전문회사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납품한 실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태평양제약, 영진약품, 동성제약 등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들과 럭키, 태평양, 코리아나 등 화장품업체, 해태제과, 동서식품 등 식품·제과업체를 비롯해 생활용품, 문구, 기계·전기 등 내수 60여대, 수출 8대로 국내 카토너 제작업체 가운데 최다 납품실적을 갖고 있으며, 매년 판매량이 늘아가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자동수축포장기도 제약, 화장품, 기계·전기업체 등에 다수 납품하는 실적을 보여 천세자동기의 진가를 알게해 주고 있다.



▲ 신한국형 자동카톤포장기 SHP-3

고유브랜드 '천세팩크만'

10년전통의 축적된 기술위에 '천세팩크만'은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 따라 고객환경에 적합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카톤포장기

자동화의 문을 연 전통기술과 쟁이기술 근성으로 품질과 성능에서 1등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욱이 운전, 조정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여 풍부한 납품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저들의 재구매 요청이 70%에 이르고 있어 천세제품의 우수성을 입증시키고 있다.

그동안 낙후됐던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해 상공부의 승인에 의해 일본자동정기(주)와 기술제휴하여 기술교류와 수출을 통한 기술의 국제화를 기하고 A/S의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1년에 2회 정기A/S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철저한 A/S와 수준 높은 기술진의 점검으로 상시 최고의 가동률 유지와 고장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세자동기가 추진중인 기계개발 방향은 '원터치 포장기계', '보급형 콤팩트 포장기계' 개발과 메카트로닉스와 서보모터를 활용한 자동화시스템 구축, 포장라인의 종합 자동화시스템 사업이다.

향후 사업계획은 카토너를 중심으로 한 포장기계 전문회사로 육성시켜

[표 1] 천세팩크만 카토너의 특징

장치	기능	기대되는 효과
1. 원터치 카톤 상부 가이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톤 흐름에 있어 카톤의 상부를 고정시키는 기능 □ 카톤 제거시 원터치 버튼에 의한 가이드 상승, 하강기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도중, 셋팅시 카톤의 제거가 손쉽다. ▲ 원터치 버튼방식-불필요한 작업동작 개선
2. 디지털 포지션 인디케이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톤의 사이즈 변경시 가로×세로×높이 변경을 핸들 조작에 의한 숫자 셋팅방식 기능 부여 □ 피제품의 폭 변경시도 동일 기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즈 변경시간의 대폭절감 (중전 30분⇒5분) ▲ 기계 내부에 설치된 부품의 분해 조정이 불필요 - 작업 환경개선(기름때 문힘) 조정작업 어려움 개선
3. 카톤 공급 콘베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톤 메거진에 비해 카톤의 적재량 대폭 증대된 장치 □ 카톤 공급량에 따른 콘베어의 자동 ON-OFF 기능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톤 적재 횟수의 대폭 축소 (작업 환경 개선) ▲ 기계 운전자의 여유시간 부여
4. 표준공구 보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조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공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계 내부에 보관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구 보관의 정위치 실현과 분실방지
5. 작업일보 작성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일보, 기록에 필요한 테이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성 실현

탐방 천세 자동기(주)

세계 우수제품과의 경쟁우위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형 포장기계의 독자적 신제품 출시, 'GOOD 2000운동'을 통한 비전 달성 등이다.

특히 GOOD 2000운동은 기술전문회사로서의 명성(Hard Thinker), 고객 니드에 따른 신제품 개발과 현장위주의 경영시스템 구축, 종업원 만족경영과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인재육성과 재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년전 엔지니어로 천세산업에 입사하여 카토너 개발에 나섰던 조 사장은 "그동안 뿌리를 내렸으니 지금부터는 꽃을 피울 때"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다"며 주변 고객에게 기여하고 카토너를 국내 시장에 정착시켰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세자동기는 고객만족을 위해 설계진들을 고객회사에 자주 방문토록 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 이를 종합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영하고 있다.

원터치 포장기는 지난해 국산화 개발품목으로 지정돼 올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 천세 고유브랜드로 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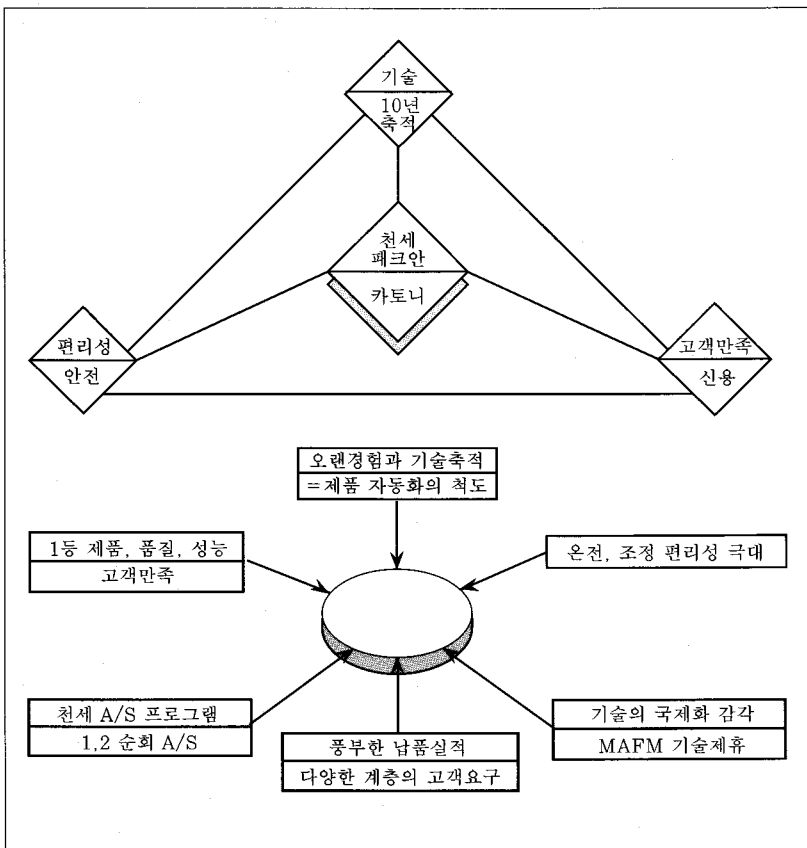
비전이 있는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윤리적인 회사, 직원만족 회사를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천세자동기는 올해부터 종업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특성에 따라 어학교육, 사무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의 포장기계회사 가운데 성공한 회사의 성장사, 개발과정, 품목 등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것은 적용시켜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모두가 주주로 되어 있는 천세자동기는 평균 6년의 근속년수를 자랑, 다른 업체와는 달리 인력구조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에는 직원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김장보조비, 야유회 동반 등 회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성의를 표현, 직원가족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되자 직원들도 돌아가며 가정에 초대, 유대강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 사장이 이같이 공동체로서 공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은 회사가 안정되려면 먼저 가정이 안정돼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표 2] 천세카토너의 기술신용도



직원 가족에 대한 배려 적극

천세자동기는 앞으로 회사가 커지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장기계획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조 사장은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부의 사회환원도 추진하겠다”고 미래상을 밝히기도 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연구소 등이 문호를 개방해 줄 것과 기술력 있는 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조건적으로 국산기계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 표현한 조 사장은 “메이커는 제대로 된 기계를 제작하는 자세로 기능 및 성능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고객들도 사용한 후 불편했던 점들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수요자와



▲ 천세자동기가 개발한 자동카톤닝머신으로 포장한 제품들

공급자가 합심한다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천세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이다.

5월이면 일본자동정기와의 수출업선이 끝나 외국으로의 수출전략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고 내수에서는 카토너 전문회사로서 최고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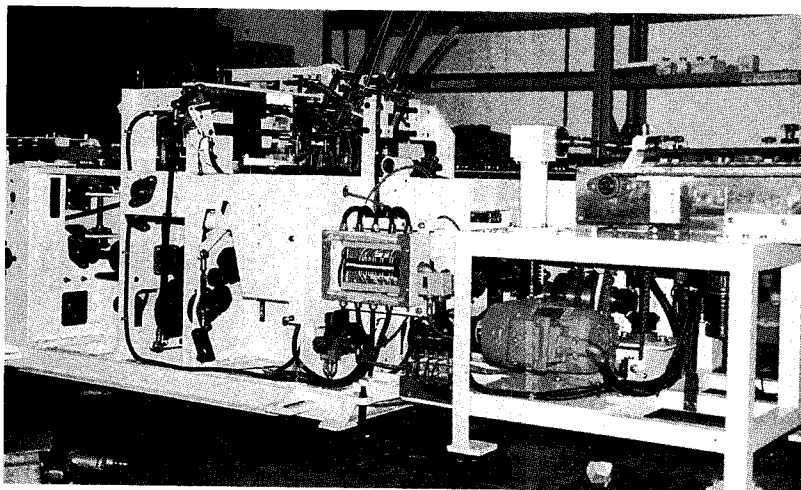
전체 매출액의 8%를 매년 개발비로 투자하였고 올해에는 2억원의 개

발 투자비를 책정한 천세산업은 컴퓨터 CAD시스템을 완비하고 최우선 시책으로 기술개발을 잡고 있으며 이에 사운을 걸고 있다.

신기술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획득 신청을 하고 특허출원도 다수 하고 있는 천세자동기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포장과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재생용지로 카톤을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천세자동기는 조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품고 있는 야망과 노력으로 머지않아 세계적인 카토너 메이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선진 기자



▲ 자동카톤포장기 제작 마무리작업 모습